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만나다.

편집자 주: 이번 호 표지 인물은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낙태반대 운동에 몸을 담았으며, 55세에 일찍 목회현장에서 은퇴하고 현재 시민사회단체를 이끄는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담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상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편집자)

인터뷰 이상원 (총신대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과(B.A.)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Th.M.), 네덜란드 캠펠신학대학교(Th.D.)를 졸업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와 네덜란드 우트레흐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 교수로 있으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Q.이상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현철 회장으로부터 낙태반대운동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논리로서 변증하는 것이고 둘째는 삶으로서 변증하는 것입니다. 논리로서의 변증은 상대방이 대응논리로 반박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삶으로서의 변증은 논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회장께서는 그동안 낙태반대운동을 통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힘쓰셨다고 생

각합니다. 이 연합운동을 주도하신 것이 기독교적 실천과정이지요.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자라오신 환경, 가정과 교육 그리고 신앙적 배경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낙태반대운동에 헌신하게 되셨는지 등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A.김현철

저는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이른바 교회 아이(church boy)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김현철대표(좌)와 이상원교수(우)

후에 되돌아보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26세에 제가 교회당 속의 불신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회개하고 회심하며 인생의 진로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는데 이때 소명을 느끼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낙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신학교 학생 시절입니다. 기독교 윤리 과목에서 각자 소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낙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낙태가 한국사회에서 만연했는데 이 문제를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학교에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서, 국회 도서관까지

가서 찾아보았지만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1985부터 2년간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미국의 생명존중(pro-life) 운동에 가입해 낙태반대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이끌었던 것에 비교해 개신교는 소극적이었고, 비종교인들이 함께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낙태반대운동연합도 종교색을 배제한 일반시민사회단체의 성격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실향민의 육남매 중 막내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가졌을 당시 이미 장성한 자녀 다섯이 있었고 생활도 너무 어려워서 늦둥이인 저를 포기하려고 하셨답니다. 당시는 피임에 관해서도 모르던 때였으

니까요. 낙태를 시키려고 병원 예약까지 해 두셨는데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중에 “이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낳으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서 낙태반대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낙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입니다.

Q.이상원

과거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모두 낙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생명존중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프란시스 슈퍼 박사인데 그는 한쪽에서는 조산아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낙태가 자행되는 모순된 현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낙태로 죽는 태아의 숫자가 연간 백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이것은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는 또 기독교는 생명을 중시하는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드러내 말하기를 꺼리면서 심지어는 낙태 반대나 생명 존중에 관해 말하면 전근대적인 학자로 매도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라이프 운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낙태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체험하셨던 일들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김현철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1994년에 낙태반대운동 연맹에 한 단체로 참여해서 2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는 점은 낙태를 고민할 위기가 오지 않도록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과 생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정도를 교육합니다. 예방 차원의 선제적 교육이지요. 그런데 교육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6~7년 전부터 SNS에 관련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1,800명의 페이스 북 친구중 상당수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낙태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

Q.이상원

실천 부족이 큰 숙제이지요. 낙태는 성도덕 문란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기독교인 청년들도 비기독교인과 인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가 청년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여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A.김현철

저는 교회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죄의 기준을 밝히는 것과 정죄하는 것을 구분 못합

니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갈 길을 압니다. 알아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정죄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어서 죄라는 인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기존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유럽과 북미가 먼저 경험한 것으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의 하나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올바른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상당 부분 종교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라는 기독교의 본질은 실종되고 종교형식만 박제처럼 남을 수도 있습니다.

Q.이상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비록 반감이 예상되더라도 성경대로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사인 제자가 상담을 요청해서, 태아가 다운증후군 같다면 병원에서 낙태를 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자에게 의사의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운증후군이라도 태아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예수께서 이 생명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이므로 낳아서 키워야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결국 고민 끝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말이지요. 다운증후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제자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이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김현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고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교인이나 비 종교인이나 모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며 후원금을 보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태이는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도 쉽게 낙태를 합니다. 생명의 문제는 철학의 주제가 아니라, 생명과학의 연구 과제입니다. 칼빈도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엄마가 태동을 느꼈을 때 그의 영혼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모자보건법과 페미니스트

Q.이상원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생명윤리에 관련된 '모자보건법'의 경우 제한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한조항은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임신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안락사법을 모태로 삼아서



김현철대표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낙태를 더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하려다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A. 김현철

현재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에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협적 접근을 수십 년간 했지만 맹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11주 6일까지는 낙태가 허용되지만 12주 1일째부터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 그룹은 낙태 허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낙태 여부는 임신 여성의 ‘권리’이니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공리주의와 효율주의에 익숙해 있어서 전통적 가치로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를 기준으로 의사선택을 하

는 것을 자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지구에서 신을 제거하고 70억 명 각자가 신이 되어 자의적으로 인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는 생명존중이라는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의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는 낙태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낙태를 자유화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곧 있을 텐데 이번에는 불합치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그런 현재의 결정이 나오면 낙태를 법으로 막지 못하게 됩니다.

Q. 이상원

현실적으로 낙태반대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낙태반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A. 김현철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생명존중이라는 하나님 기준을 유지한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라

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Q.이상원

기독교 운동이 현실을 무시한 유토피아적인 이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규범이나 이상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입니다.

A.김현철

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게 이상을 낮추면 현실은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극단적 생명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이란 그 속성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단 한번도 서쪽에서 뜬 적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문제

Q.이상원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은 산아제한운동을 벌였습니다. 국가가 3%의 인구 증가율을 2%대로 강제로 낮추도록 나섰지요. 저는 이것이 낙태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 2000년 초기와 비교해 보면 2017년 한해 신



이상원교수

생아 출산율은 70만명 이상으로부터 35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는 등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반대 운동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A.김현철

저출산과 낙태를 직접 연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과 낙태는 서로 다른 주제입니다. 이 둘을 연관시키면 자칫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경제정책의 하나로 낙태를 도구화했습니다. 인구과잉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낙태와 정관수술을 권장했습니다. 고출산 해결의 수단으로 낙태를 조장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저출산 해결의 수단으로 낙태를 규제하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발상입니다.

Q.이상원

여성의 권리 신장이 요구되는 시대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인구의 70% 정도가 30대 이하라고 하더군요. 베트남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2-3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서른이 넘으면 결혼과 출산의 과정이 거의 끝납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인구절벽으로 고민했는데, 지금은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를 봐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가가 정책을 보완하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생명존중의 분위기로 바꾸는 노력으로 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김현철

정부가 복지정책을 제공하면 우리가 북유럽이나 덴마크처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중문화와 몇몇 목소리 큰 사람을 통해 “결혼은 무덤이다.” “육아는 행복을 앗아간다.”는 식의 부정적 메시지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단함을 피하는 극도의 편리주의가 청년에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준다,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도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경제적 복지정책만을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생명존중과 육아의 기쁨을 알아야

Q.이상원

결국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하고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세계관을 잘 정립시켜서 대중화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스며들게 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에 관한 건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윤리, 결혼윤리와 함께 그 안에 삶의 의미가 가득하고,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따뜻하고 건강한 결혼윤리를 교육해야하는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A.김현철

자존감의 결여가 불행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균등주의가 전체적으로 퍼져있어서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하니 나도 일년에 두 번 정도는 가야하고, 남의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가니 내 자식도 보내야하고, 저 사람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니 비싸더라도 나도 거기서 사야하고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복지정책으로도 부족하고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편리 comfortable’와 ‘평안 peaceful’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편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핍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인간은 고통, 인내, 절제, 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욕구를 즉흥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비혼주의자들은 40대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후회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건너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청년에게 많이 말해 주어야 합니다.

Q. 이상원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인지? 참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혼모가 결혼 하지 않고 사생아를 키우면 정말 불행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사생아를 키우는 과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고 더 끈끈한 정으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점의 근본적 변화,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된 가치관을 현장에서 전파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우리 학자들이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김현철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고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불행을 감히 누가 예측한단 말입니까? 좋은 환경과 우월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정체가 분명해야만 그 교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것입니다(로마서 12:1).”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사람 모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간주하자 분열과 혼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의 관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종 사회문제를 다룰 때 복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그 다음에 실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낙태반대 운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